2024년 05월 06일 15시 57분

수고하셨습니다. (목포꿈다락 최예나, 최예진)

2015.08.23 조회수 112 등록자 최창래

첨에 많이 수줍어하던 우리아이를 보면서 걱정도 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대위에 올라가는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도 수업 받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좋았습니다.

연극반 수업은 꼭 가겠다고 하던 아이였습니다.

아파서 하루 결석해서 선물을 받진 못했지만...

무엇보다 고생 많으셨던 정권숙 선생님

그리고 준비와 진행하신 코디선생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목록

이전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최예나)

다음글 돈키호테를 보고나서(목포꿈다락 최예나, 최예진)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MokPo - Si
Web Contents